

연중 제27주일

군인주일

제1독서 : 창세 2, 18-24

제2독서 : 히브 2, 9-11

복 음 : 마르 10, 2-16

순정이

“하느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히브 2, 10)

강론

군인도 사람이다!



장상원 신부/명성대 신부

어떤 할머니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 손자를 찾아 갔습니다. 할머니가 씩씩털털한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보니 손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손자를 찾다니 일단 다리에 힘부터 빠지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군인들에게 “아무개 할머니인데, 아 우리 손자좀 만나게 해주세유...” 해서 결국 손자를 만났는데, 할머니 왈, “아 야, 여그는 어찌 사람들은 없고 군인들만 있다?”

할머니 표현대로 사람죽에도 못드는 군인신부 장안드레아 인사올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로 건강하게 군중신부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우러러 보는 하늘을 날으는 공군 원주기지에서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자수와 규모는 어느 시골의 작은 공소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서 조금은 단순하고 많은 제약과 조건이 따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아 있고 젊은이들의 교육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나가는 곳, 그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목을 한다는 것은 밖에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어려움이 상존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접어두고서라도 군인신자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부터 사병들을 향한 선교에 이르기까지 벽찬 부분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신부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회적인 상식

의 때도 묻지 않은 사람들과 살면서 황당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신부님은 왜 결혼을 안하세요?” 신부의 로만칼라를 보고 “혹시 목을 다치신 것은 아니시죠?”라고 묻는 사람들, 한편으로 이해되더라도 웃음과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행단에 있는 3000명, 더 나아가서 60만 대군을 저의 사목대상으로 여기고, 자연스레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다는 희망말입니다. 군인신자들을 일컬어 나이롱 신자, 물 신자, 발바닥 신자라 해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신앙이 엉거주춤한 민간인(?) 신자보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옛날 춥고 배고픈 시절에는 초코파이 하나로 사람을 낚을 수 있었다면 요즘은 제과점 빵으로, 예전에 커피 한 잔으로 관심을 갖도록 했다면 요즘에는 따뜻한 라면 국물로 대체시켜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량공세의 선교전법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여기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양성하고, 그런 평신도들이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어쩌든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정성이 담긴 후원 없이는 군사목의 앞길도 먹구름이 짙어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밀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느낌이 들 때라도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에 힘입어 굳건하게,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 흐르길 기도하며.....



바로 지금부터다

한 상 갑(바오로)

□ 월드컵 축구 유감

지난 주일 오후 온 나라가 월드컵 축구 열풍으로 뜨거웠다. 그날 우리 교구에서는 교구 설정 60주년을 기념하는 신앙대회가 있어서 몇몇 사람들은 편안한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웠다. 그래서 대회 봉사자들은 손발로는 행사 마무리를 하고, 한쪽 귀는 중계방송에 묶어 두고 있었다. 우리가 먼저 골을 넣었다는 소식에 다리가 더욱 무거웠지만 동점과 역전승의 소식에는 피곤함을 잊을 수 있는 오후였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축구계나 국민들은 서로 엇갈린 감정으로 들떠 있다. 벌써 일본에서는 감독의 진퇴를 거론하기도 한다고 한다. 대개의 경기에는 승패가 있기 마련이다. 거기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그러니 지금은 지난 경기의 승패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승자나 패자 모두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바로 지금부터라고 늘상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 “문철 도령님이 힘들었어요”

올해로 교구 설정 회갑을 맞는 우리는 여러 행사와 사업을 벌였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님 이시여 사랑이시여」 공연과 신앙대회라 할 것이다. 호남의 사도 유향검 일가의 생애를 엮은 창극은 공연을 기획할 당시부터 약간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전문 연극인들이 많지 않은 상황인지라 그랬다. 태반이 비전문인으로 구성된 전주교구 가톨릭 예술단이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특별출연한 전문 연극인들의 도움을 입기는 했지만, 그들은 실로 엄청난 일을 해냈다. 쫓기는 일상의 삶에서 시간을 쪼갠 그들의 열성은 실로 대단했다. 작품 내용도 좋았고 기도하는 자세의 연기도 훌륭했다. 이 공연을 통해서 특별출연자 가운데 어떤 이는 신자가 되기로 맘먹고 자기가 맡은 배역의 세례명을 본인의 세례명으로 미리 정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흐뭇한 이야기거리라 하겠다.

그에 비해서 신앙대회는 어떠했는가? 한 마디

로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첫째는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본당별로 배정된 경기장의 좌석이 많이 비어 보기에 참으로 좋지 않았다. 대중집회가 자꾸만 어려워지는 시대의 추세도 감안해야 하겠지만, 참여의 문제점은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는, 여기저기 빈 자리가 많은 경기장이 미사가 끝나고 기념식 시간에는 썰렁할 정도로 자리가 빈 때문이다. 이점은 계획단계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신앙대회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입장식 때의 분장행렬도 좋았고, 축하 풍물놀이도 좋았다. 끝까지 남아서 함께 어울려준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더욱 좋았다. 각 부서별 봉사자들의 노고가 있어 대회는 잘 끝났다.

□ 바로 지금부터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날마다 새로 나야 한다. 외형적인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성사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 나야 한다. 60주년을 지내는 우리, 가끔 자문해보아야 할 몇 마디가 있다. 너는 도대체 새로워지기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끼리는 잔치(신앙대회)도 했지만, 동네 이웃과는 무엇을 나누려고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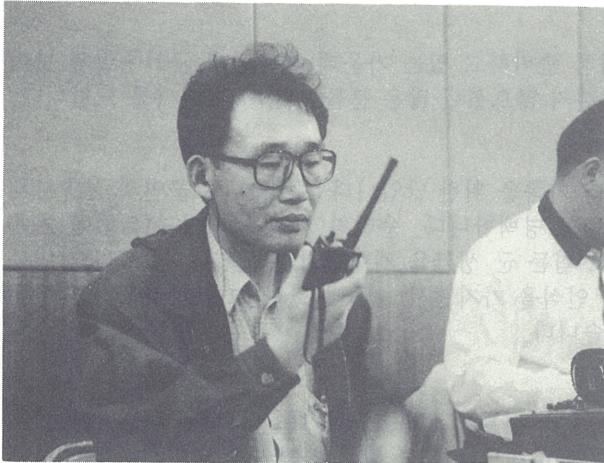
이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사도 다 끝났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정한 60주년의 주제마냥 날마다 새롭게 사는 일만 남았다. 바로 지금부터 말이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새로운 삶을 바로 지금부터 살아야 한다.

숲정이 산책



사랑의님을 노래하며...

전주교구 설정 60주년 행사를 마치고 많은 신자들에게 감동을 준 기념극 '님이시여 사랑이시여'의 연출을 맡은 김정수(안토니오, 금암성당)씨를 만나보았다.



- 전주지역에서 순회공연을 한 이번 음악극이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연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곡은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 평협 문치상 회장님으로부터 순교극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제의를 받은 것은 작년 3월 3일입니다.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고 작품을 구상했지요. 처음엔 단순히 이루갈다 동정부부의 이야기만을 다루려고 했는데 점차 생각이 바뀌어 권상연, 윤지충 등 전주교구 순교성인 다섯 분과 200년전 초기 순교사, 그리고 무속신앙, 혼례식 등 한국의 민속을 함께 조화시켜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극중에 나오는 음악이 아주 마음에 와 닿던데요.

- 저는 처음부터 이 극을 주의기도로 시작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악미사곡을 새로 작곡하여 삽입함으로써 극전체를 하나의 봉헌으로 꾸미고자 했습니다. 순교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만을 믿는 가난한 백성들의 신앙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원을 모집하고 공연 준비를 시작했는데 출연자들이 연극을 처음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어서 무대에서의 걸음걸이, 대사 연습 등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과연 9월에 공연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으로 극단이 해체위기까지 가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저는 교구나 60주년 기념행사 위원회 측에서 저희를 믿고 밀어주기만 한다면 반드시 좋은 연기를 보일 수 있으리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애로점은 직장인, 가정주부, 어린이, 학생들로 이루어진 출연자들이 함께 모여 연습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던 점입니다.

- 이번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어떤점이 마음에 남으시는지요?

- 단원들끼리 속살을 내놓고 함께 고생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이 좋았습니다. 서로 서로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희곡을 쓰면서 순교선조들의 삶에 감동을 받았지만 가사를 보면서 작곡자도 많이 울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극을 만드는 사람들이 마음이 먼저 열리니까 자연스럽게 그 감동이 관객들에게까지 전해진 것 같습니다.

- 보람을 느끼신 점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입니까?

- 이번 연극을 함께 한 비신자 단원중 3명이 신자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무대에 직접 출연한 배우뿐 아니라 음악, 무대장치 조명, 섭의를 맡은 분 등 그동안 함께해 준 전 스태프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특집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

군인주일 담화문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로운 천년기와 뜻깊은 대회를 눈앞에 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서른번째 군인주일을 맞이 하였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군사목에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인주일은 연례행사가 아닙니다.

군인주일은 연례행사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한 날입니다. 우리가 왜 군인과 군종사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거의 예외없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군에 있거나, 군에 갔다 왔고, 그 어렵고 힘든 군 생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병들은 나라와 국민의 안정과 자유를 지켜주는 봉사자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그들과 또한 그들을 사모하는 군종 사제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도움을 베풀어야 하였습니다.

군은 특수한 집단입니다.

사실 이미 신문에 보도된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한 질문에 해외로 도피하겠다는 학생들의 숫자가 30%를 넘었고, 우리나라 보다 다른 나라에 태어 나기를 희망한 학생의 수는 50%를 넘었다는 어느 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앞으로 이 땅을 보존하고 지켜 나가야 할 미래의 주인공들로서 가져야 될 의식들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준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가을 무장 공비 침투사건때 우리 군은 귀한 생명을 잃었고, 또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몇 달을 두고 벌인 검문 검색, 몇 차례의 교전 끝에 상황은 마무리 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수고와 희생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는 이후에도 여전히 전선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고, 밤낮으로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근무에 여념이 없는 우리 군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군인들은 한결같은 우리의 자식들이고 형제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일선에 나선 것도 아닙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군에 들어와 생활하는 이들은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마태 9, 37)

이러한 젊은이들이 군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세우고 긴장과 불안, 갈등을 이겨나가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데 무엇보다도 신앙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종교행사와 종교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신부, 목사, 법사들에게 이들을 이끌도록 합니다. 참으로 이들은 힘든 삶을 살기

민 속 떡 집

맛총떡 · 폐백전문

이 종 술(미 카 엘)
박 양 레(미카엘라)

☎ 84-4427

전주교묘 남부시장 입구

원구 종합 전문 매장
전주완구도매센터

리틀타이스, 레고, 영실업, 미미
전동차, 발육기구

각종 고급 완구 도 · 소매
다가동 ↔ 도청(삼성생명 옆)

이 근 초
정 명 희(아네스)

☎ 84-2795, 84-8561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여
최 윤 경(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기초반 · 메이크업반 · 연구반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0653) 841-2495, 855-8653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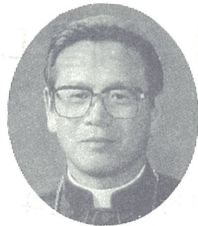
전신C-T촬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쉴잠이 적습니다.



정명조 주교/천주교 군종 교구장

에 더욱 신앙을 목말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종파에서는 선교의 마지막 보루로 군을 택하여 매년 20여만 명 안팎의 젊은이들을 세례 입교 시키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 하기 전에 이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군 통계를 보면 신자 비율이 대부분 개신교, 그 다음이 불교 신자이고 천주교는 12%정도 입니다. 12%의 천주교 신자는 그래도 알짜 신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군에 들어온 신자는 1~2%뿐이고 거의 냉담신자거나 세례만 받고 첫영성체도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군사목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군종사목은 바로 한국교회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꾼이 많아야 합니다. 지금 군에 있는 성직자 수는 수백 명이 되지만 천주교는 76명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종파는 민간 성직자의 지원이 군 성직자 수의 배 이상이나 됩니다. 이들은 위문단을 함께 데러오기도 하고 위문을 올 때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빵 때문에 신앙을 선택한 사람은 빵이 없으면 종교를 버리겠지만 우선 고기가 많아야 잡히는 고기도 많고, 씨를 많이 뿌려야 곡식도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정성으로 60만 대군을 먹이겠습니다.

그래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군사목도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군종신부들은 거기에 힘입어 사명감을 갖고 군에 오래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마태 14, 16)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진 것이 겨우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 밖에 없지만 오천 명 보다 더 많은 60만 대군을 먹일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배불리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군종신부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대희년 맞이의 알찬 준비가 이루어지길 기도드리며, 그 동안 군사목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종후원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어제와 오늘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1995년 10월 5일 군인주일에

요심이 (1260) 김병오



초대합니다.

효자우전성당 준공기념 바자회

1. 때 : 10월 16일(목)~19일(일)
2. 곳 : 효자우전성당

☎ 사무실 221-3711
FAX 226-1044

하느님의 새성전에 놓여질 성물의 은인을 찾습니다.

성작, 성합, 주수병세트
성체조배실 감실과 성광
감실등, 십사처의 -

연락처 (0652) 221-3711~2
효자우전성당

연지곤지 웨딩이벤트

드레스 40만원

(턱시도·신부화장 부케, 폐백옷 무료)

웨딩포토·비디오 촬영 원판

유 순 이(가터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앞

☎ (주) 82-2347 (야) 225-5755

침대공전시장

◎ 목재 침대

• 싱글 : 110,000원

• 더블 : 160,000원

• 쿤 : 300,000원

이 레 가 구 산 업

김 미 숙(안젤라)

완산구 삼천동(풍남중 건너편)

☎ 225-2368, 5328

서 립 모 피

'98 모피 신상품 전시판매 개시

훈수, 호도 상품 "초특가 판매"

모피의류 수선·개조 및 세탁 상담

익산시 어양동/익산 수출자유지역내

전시장 연락처 (0653) 833-2111~4

가톨릭 사진가 회원모집

아름다움을 찾고 발견하는 기쁨을
함께할 분을 초대합니다.

가톨릭 전주교구 사진가회창
이규현 루가(KBS PD)

연락처 (0652) 70-7331(KBS)
85-0041(교구청 홍보과)

도보성지 순례를 다녀와서

장정기/삼천동 예비신학생

9월 7일, 아침 일찍 성지순례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 집결지인 시청앞으로 향했다. 출발하기에 앞서 교구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갖는 오늘 일정이 앞서 주님의 길을 걸으셨던 순교자들의 넋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빌었다. 처음에 도착한 곳은 '숲정이'였다. 옛날에 이곳은 숲이 칙칙하게 우거져 '숲정이'라고 불리웠다고 한다. 조선조 때에는 군인들의 훈련장으로 사용되었고, 천주교인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형장으로도 사용된 곳이다. 원 순교터는 구 해성 학교 운동장 구석에 기념탑을 세워 보존해 왔었는데 학교를 옮기면서 기념탑은 없어지고 기타 유물들이 현 윤호관 앞

뜰로 옮겨져 있는 상태였다. 우리는 좀더 진지한 마음으로 순례길을 걸으려 노력하며 천변을 따라 서천교와 초록바위를 향했다.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작은 희생이라도 바치기위해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으면서 길을 걸었다. 서천교 옆 천변인도에 순교자 조운호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그의 이름을 따 현재 우리

교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윤호관의 이름을 지었다하니 우리 순교자들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 없구나 생각했다. 초록바위 아래를 흐르던 제법 컸다던 전주천(川), 거기 16세 이하의 젊디 젊은 넋들이 순교한 자리는 굳은 시멘트로 메워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아래에 흐르고 있는 순교의 천(川)은 우리 마음 속 깊이 흐르고 있으리라. 우리는 발길을 옮겨 전동 성당에 도착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곳 전동 성당은 한국 천주교회의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호남의 첫 사도'인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등이 순교한 거룩한 땅으로서 '한국천주교회 순교 1번지'인 곳이다. 정말 우리 교구에서 첫 순교자가 탄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신부님께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곳 성전의 벽돌 한 장 한 장은 순교의 피로 얼룩진 흙으로 구워 났다고 말씀하실때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성당 곳곳에 스며드는 순교의 향기가 내 마음을 저미게했다. 장하다. 순교의 넋이여..... 점심을 마치고 우리들은 치명자산으로 향했다.



치명자산을 오르면서 나는 주님이 걸으신 구원의 길, 순교자들이 걸었고 이제 사제의 길을 걷고자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다. 각 처를 오를때마다 땀이 흐르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목도 말랐다. 하지만 돌무더기위에 굳게 서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순교자들을 본받아 최선을 다하리라 굳게 다짐하며 참았다. 성당에 도착하여 잠깐 숨을 돌리고 이날 일

정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미사를 올렸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큰 조상님이신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 동정부부 일가족의 묘소앞에 큰 절을 올렸다. "저희들 다녀갑니다." 내려오는 길에 지도 신부님께서 뽕따를 사주셨다. 나는 시원한 뽕따를 마시며 오늘 흘린 땀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희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희 민(루가)

남전주 천화교 앞(구 영광주유소)

☎ (0652) 226-7600~1

롯데건강원

최창림(토 마)
박정희(모 니 카)

효자동 롯데아파트 상가내 1층

☎ (0652) 225-4319

EQ유아교실

영·유아의 기본생활교육
놀이를 통한 정서 함양,
사회성 발달교육
1세~6세까지의 유아

성원아파트 ↔ 서문초동 중간

전 미 자(아가다)

☎ (0652) 74-2872

숲정이 익스프레스 이사짐

사다리차 · 인부대기 · 포장이사

251-2024

☎ 246-2024

223-2024

이 한 주(토마)

교구소식

군인을 위한 기도

- 평화의 주님
오늘도 조국을 지키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을 굽어보시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굳건한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따라 더욱 충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군인들에게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소서.
- 또한 전후방 각지에서 군사목에 전념하는 군중 사제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오늘 군인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은 정성 어린 기도와 후원으로 일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사회복지 월례미사
· 때 : 10월 6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가톨릭센터

❖사무장, 사무원 소풍
· 때 : 10월 6일(월)~7일(화)

❖새사제 연수
· 때 : 10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교구청

❖여성 59차 꾸르실료
· 때 : 10월 9일(목)~12일(일)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혼인강좌
· 때 : 10월 12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예비 신학생 모임
· 때 : 10월 12일(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광주 가톨릭 대학 방문은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무주구천동 리조트 주일미사
· 때 : 주일 오전 6시 30분
· 장소 : 무주 리조트입구 왕성가든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일일피정
· 때 : 10월 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효자동 성당
(0652) 223-3821
· 강사 : 서정혁 신부

❖김정민 신부 주소변경
横浜市 中區 山手町 44 カトリシ
ク 山手教會 〒231 日本
☎ 641-0756 金廷珉 神父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때 : 10월 14일(화)
· 강사 : 김진석 신부
· 주제 : 올바른 성모신심
· 때 : 10월 18일(토)~19일(일)
· 강사 : 조규식 신부
· 주제 : 믿음과 희망과 그리고 사랑

❖97년 성령새신 전주대회
· 때 : 10월 21일(화) 오전 9시
· 장소 : 윤호관

성소모임

- ❖동정 성모회
· 때 :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 장소 : 금암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 253-0325
- ❖바오로딸 수도회
· 때 : 매월 첫째주 오후 2시
· 장소 : 바오로딸 서원
· 문의 : (0652) 252-3398
- ❖살레시오 여자 수도회
· 때 : 매월 셋째주 오후 2시~5시
· 장소 : 정읍 연지동 성당
· 문의 : (0681) 33-2578

권해 드립니다

카세트/22분/51분/3,000원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
과 사랑을 전하는자 되도록 동반해
주는 카세트 테이프

무방부, 무색소, 무공해, 건강발효식품
올외, 오이, 무우 장아찌(나나스케)

토림식품

대표 : 정 작(빅토리아노)
강 우 창(마 리 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58-1
☎ 211-5277
호출 015-6603-2022

카세트의 화면을 보면서
동시에 듣는 어학기

초중고 영어·생활영어 TOEIC

북자성당 앞 신협2층
☎ (0652) 231-8100

보석전문점 빛돌

창업 5주년 기념 감사 대축제
이 재 호(베 드 로)
구 정 삼(세실리아)
관동로 전일관광 옆
☎ 86-8750

전동성당 지정 사진관 유일사진관

백일, 돌, 웨딩앨범촬영
회갑·칠순 비디오 촬영
류 영 문(가예따노)
류 윤 식(가 밀 로)
☎ (0652) 83-1949, 84-9740

(주) 청풍 공기청정기

세계 최초 국제발명품 대회 환경부
7회 연속 금상 수상 • 담배연기, 냄새,
세균, 곰팡이균 등 오염물질 완전분해,
쾌적한 생활공간 • 무소음, 무필터,
음이온(-) 산소발생 공기청정기
조흥기(아빨리나리스)
이현자(세 시 리 아)
☎ (0652) 251-0222

고려보석

금·은·시계
결혼 예물 전문
(목주단지 제작전문)
김 형 태(율리아노)
박 태 연(마 르 타)
전동성당 사거리 전복은행 앞
☎ 82-9005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예비신자와 쉬는신자를 인도합니다 !

- 모임 안내 : ① 자모회 -8일(수) 전 10시 ② 동그라미 불령회 -8일(수) 후 8시 ③ 레지오 꾸리아 -12일(주일) 교중미사 후
- 군인주일: 기도바람, 2차헌금 있음.
- 전국 올드레아 : 오늘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있음.
- 축! 혼인 : 오늘 전 12시 30분, 신랑-안강일(가브리엘)
신부-임동주(안셀모)씨 장녀 임혜정(폴로라)
- 제단체 피정 : 7일(화) 천호 피정의 집, 구역반장, 부녀회, 제대회
- 가정방문 : 8일(수) -한강 1반, 9일(목) -한강 2반,
10일(금) -하이츠 1반
- 미사시간 변경 : 새벽미사-6시, 저녁미사-7시, 금요미사-10시 30분
- 축! 꾸리실로 교육 : 김영근(크리스티나), 유현숙(발바라),
이영자(모니카), 소은순(빛다), 김정희(소하데레사)
- 부녀회 꽃판매 : 매주 목·금요일 레지오 회합을 위하여
- 바자회 : 16일부터 효자우전성당 사무실에서 티켓 구입 바람.
- 구역형제회 : 구역별로 형제회 조직요망
- 금주 전례 : 해설-김학덕, 독서-이동수(요셉푸베르뜨노)부부
봉헌-정세준(사도요한) 가정
- 차주 전례 : 해설-이점열, 독서-김태년(라파엘)부부
봉헌-김무용(시몬) 가정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춘 웅

◎ 10월은 목주기도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

※ 목주기도를 많이 바치고, 전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쥬정이”를 전달합니다 !

◎ 오늘 : 군인주일 2차헌금, 빈첸시오회비 납부일

- 금주 모임 : ① 요아킴회 -공식미사 후, 4회의실
② 안나회 -공식미사 후, 유아실

- 주간 모임 : 성령기도회 -7일(화) 후 8시, 유아실
※ 차주-성소후원회비 납부일

- 제5차 세계대회 및 제12차 전국 올드레아 : 5일(금주)
서울올림픽공원 1체육관,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바람.

- 환자 봉성체 : 10일(금) 후 1시부터, 수녀님

- 전입가정 환영 : ① 임유정(오질리아) T. 75-7748, 동아A 103-702
② 심상옥(야코브) T. 252-9918, 10구역 3반

- 성당부지헌금 신입 감사! : 의병 5만, 이근창 40만
누계 268,615,000원(465세대)

※ 성당부지헌금에 우리의 정성을 다합니다.

- 월력광고 모집 : 1998년도 월력에 광고 내실 분 사무실에 접수바람
(8명 선착순)

- 독서 : 금주(새벽)-① 오정중 ② 신덕순, 차주-① 김옥기 ② 최유진
(공식)-① 노문석 ② 한복이, 차주-① 최성복 ② 유인숙

- 미사 안내 : 금주-평화의 모후Pr., 차주-애덕의 모후Pr.

□ 지난주 교무금 : 1,710,000원

용매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도다.

◎ 새 성전 신축 위한 목주기도 봉헌 : 소계 - 1,742단
누계 -532,236단

- 모임 : ①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② 테니스 -오늘 후 2시, 해상학교
③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봉성체 : 11일(토)
- 등산(산악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 뜻있는 모든 분 참석바람
- 신축기금 마련 책(冊) 판매 : 협조바랍니다.
- 어린이장 잔치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사무실 휴무 : 6일~7일, 사무장 소풍
- 금주 전례 : 해설-김종성, 독서-① 황금석 ② 이수자
- 차주 전례 : 해설-곽명실, 독서-① 이강윤 ② 국혜원

□ 지난주 봉헌금 : 332,500원 □ 교무금 : 716,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도다.

- 금주 모임 : ① 꾸리아 -전 9시
② 구역(반)장 회의, 올드레아-낮미사 후
※ 군인주일 2차 헌금 있음.
- 사무장(원) 소풍 : 6일(월)~7일(화)
- 차주 모임 : 요셉회, 안나회, 반석회, 자모회 -낮미사 후
- 이웃에 이사 오셔서 아직 성당에 못나오시는 분들을 사무실에 접수 바람
- 음반보급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람 : 11일-대구교구
- 유아 세례 : 18일(토) 후 2시 30분 ※ 17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람.
- 청소 봉사 : 11일(토) -예언자의 모후Pr.
- 폐품 정리 : 11일(토) -상지의 옥좌Pr.
※ 폐품을 가져 오시기 어려운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바람.
- 금주 전례 : 새벽-유희정, 낮-이영순, 저녁-이영숙
- 차주 전례 : 새벽-곽순옥, 낮-홍정의, 저녁-김영종

효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보좌신부 223-3823 수 녀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이 병 선

◎ 오늘은 군인주일 -2차 헌금 있음

- 금주 모임 : ① 지속적인 성체회 일일피정 및 월레미사-7일(화) 전 9시~후 5시 ② 안나·요셉회 야유회-8일(수) 전 10시, 선운사
- 차주 모임 : ① 선교특위 -12일(일) 10시미사 후 ② 사회복지분과 회-15일(수) 전 10시 ③ 청소년분과회 -17일(금) 후 8시
④ 예루살렘회 -18일(토) 전 11시
- 분당 선교 교육 : 13일(월) 후 7시 30분부터, 대상- 각Pr. 단장과 간부, 구역반장과 총무, 각 교리반 봉사자, 학생회 생활장과 간부 1인, 주일학교 각학년 담당과 대표 1인, 각 신심단체장과 임원 1인, 각 친목단체장과 임원 1인, 지참물-성서, 성가책, 필기구
- 여성 59차 꾸리실로 교육 : 9일(목)~12일(일), 천호피정의 집, 배정옥(울리안나), 양시령에(엘리사벳), 이옥란(아네스), 김사순(에스텔)-많은 기도바람, 환영식-12일(일), 7시미사 후.
- 구역미사 : 9일(목) 후 8시, 개나리A구역 6. 금주 섬서통독 : 신약복습(갈라디아서)
- 평신도 교리반 개설 : 예비신자 교리기초반(2개월과정)운영
- '내친구들과 '생활성서' 10월호가 나왔습니다.
- 전입교우 환영 : 김창숙(수anna)-쌍용A 114-209, T. 223-9641, 양창수(모이세)-삼천주공 204-502 T. 227-8719, 전희자(아가다)-쌍용A 101-503 T. 227-8739
-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 봉사 : 성당주변 구역

효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김 규 완

- 금주 모임 : ① 천주의 모친Cu.-공식미사 후 ② 자모·성모·성심회-10일(금) 10시미사 후 2. 신학생 후원회 가입과 회비접수
- 성체강복 : 8일(수) 4. 봉성체 : 10일(금)
- 사목회 임원 명단 : 사목회장-김규완, 부회장-박영근, 김낙완, 김화자
① 총무부장-강인성, 차장-권호상, 박병남 ② 선교부장-이종상, 차장-태기홍, 한정숙 ③ 전례부장-이종표, 차장-이인숙 ④ 재정부장-최봉춘, 차장-황근용, 박혜숙 ⑤ 홍보부장-김용만, 차장-이한은
⑥ 청소년부장-정병태, 차장-조재용, 최형희 ⑦ 애령부장-김갑수, 차장-배형권, 김지영 ⑧ 구역부장-권정희, 차장-최영일 ⑨ 여성부장-임정신, 차장-오순자, 김경임 ⑩ 교육부장-라영길, 차장-김영호
⑪ 사회복지부장-이종재, 차장-이준순 ⑫ 사업부장-신승철, 차장-송성호, 이기호, 임애자 ⑬ 감사-이수원, 조세열 ⑭ 교문-이교성, 유병환, 송재진, 채수련, 이병진, 엄익도
- 성가 연습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 바자회 기간 동안 전신자본은 봉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차주 : 바자회 준비 봉사하실 분은 12일(일) 9시까지 성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 금주 전례 : 해설-이한은, 독서-① 권호상 ② 허선영
봉헌 안내-임낙규, 서쌍용 부부
- 차주 전례 : 해설-이종표, 독서-① 여태구 ② 정현주
봉헌 안내-김규완, 황경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86,080원 □ 교무금 : 2,092,000원